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 신차 공개… “프리미엄 시장 공략”

한국GM ‘GMC 브랜드 데이’

아카디아·캐니언 공식 판매 돌입
허머 EV, 전동화 비전·기술력 집약
“‘프로페셔널 그레이드’ 브랜드 새 장”

한국GM이 내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 GMC의 라인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캐딜락과 함께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GM은 27일 경기도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GMC 브랜드 데이를 열고 향후 국내 전략과 신차 허머 EV, 대형 SUV 아카디아, 중형 픽업 캐니언 등 3종을 공개했다. 아카디아와 캐니언은 이날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했고, 허머EV는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한국GM은 그동안 국내에서 GMC 픽업트럭인 시에라 1종만 판매했다. 하지만 이번 라인업 확대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다. 뷰익까지 출시하면 한국은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 쉼보레,



한국GM GMC 브랜드데이 신차 3종.

캐딜락, GMC, 뷰익 등 4개 브랜드를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헨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GM은 전 세계적으로 멀티 브랜드,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을 통해 각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GMC가 한국에서 ‘프로페셔널 그레이드’ 브랜드로서 새 장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신차 3종은 대형 SUV

‘아카디아’, 중형 픽업 ‘캐니언’, 전동화 SUV ‘허머 EV’이다. 아카디아와 캐니언은 이날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허머 EV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된다.

아카디아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332.5마력, 최대토크 45.1kg·m을 발휘한다. 최상위 트림인 ‘드나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아카디아는 2-2-3 시트 구조의 7인승 모델로 3열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이 각각 979mm, 816mm로 동급 최고 수준이다.

트렁크 공간은 648L로 골프가방을 수납할 수 있고 2열까지 접으면 적재 용량은 최대 2758L로 늘어난다. 견인력은 최대 2268kg이다. 국내 GM 차량 최초로 티맵 오토를 기본으로 적용했고 노면의 진동 주파수를 감지해 감쇠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탑재됐다.

캐니언은 2.7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

재해 최고 출력 314마력, 최대토크 54kg·m을 발휘하고 최대 3천493kg을 견인한다. 오토트랙 액티브 2 스피드 사륜구동 시스템과 리어 디퍼렌셜 잠금 기능을 통해 노면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허머EV는 GMC의 전동화 비전과 기술력을 대표하는 럭셔리 SUV로 사륜 조향 기능을 통해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아카디아 8990만원, 캐니언 7685만원으로 책정됐다. GM 관계자는 “아카디아의 북미 가격은 약 6만7000달러로 한화로는 1억원 가까이 된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하러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한국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 “한국 자동차 시장은 프리미엄 SUV와 성능 중심 세그먼트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인다”며 GMC를 통한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배터리업계, 실적 경고등… 非전기차 사업전환 시험대

전기차시장 수요 둔화 등 업황 악화
국내 3社, 지난해 4분기 적자 유력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4분기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중국 등 글로벌시장 경쟁 심화와 함께 전기차 수요 둔화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비전기차 영역으로의 사업 전환이 실적 저점 통과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번 주부터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SK온은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28일, LG에너지솔루션 29일, 삼성SDI는 2월 2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잠정 실적을 통해 1220억원의 영업손실을 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3328억원을 반영한 수치며 이를 제외할 경우

총 4500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SDI 역시 적자 흐름이 이어져 에프앤가이드는 영업손실을 3076억원으로 예상했다. SK온도 약 32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적 부진 배경은 배터리 출하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지속된 점이 꼽힌다. 또 주요 시장의 정책 환경 변화가 주요 위축을 가속화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말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종료된 이후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요 둔화에 따라 주요 완성차 및 소재 업체들의 계약 축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2월 포드와 FBPS 등과 체결했던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엘앤에프는 테슬라와의 약 3조8000억원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

약이 대폭 축소됐고, 포스코퓨처엠 역시 제너럴모터스(GM)와 체결한 양극재 공급 계약 규모를 기존 대비 크게 줄였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질 경우 이같은 계약조정 사례는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150만대에서 올해 110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환경 악화 속에서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CATL은 지난해 1~11월 기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29.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3사의 점유율은 모두 하락했다. 국내사들은 삼원계(NCM)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 왔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확산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의존도를 낮추

고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부각중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력망 안정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지난해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은 314GWh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주목받고 있다. 배터리 탑재 용량은 작지만 고출력·고안전성이 요구돼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장착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춘 NCM 배터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둔화는 향후 2~4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와 점유율 하락 속에서 ESS와 로봇을 축으로 사업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비상 국면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 선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사진)’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약 90개국 3800여명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올림픽 에디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념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했고, 온디바이스 AI 통역 등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서비스를 탑재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S전선, 600억 규모 해저전력망 프로젝트 턴키 수주

말레이시아 전력공사 프로젝트 수행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Turn-key·일괄수행)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 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LS전선은 설계부터 자재 공급, 해저 케이블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고난도의 턴키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수주전에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은 과거 수행한 ‘랑카위 1차 프로젝트’에 이어 2차 사업까지 연속 수주에 성공하며 현지 해저 전력망 구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쌓은 신뢰와 엔지니어링 역량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이 이번 수주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 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아세안 파워 그리드(APG)’ 구축을 목표로 대규모 해저 전력망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섬이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약 20조 원 규모로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LS전선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외 수주 레퍼런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 상반기 입찰 공고가 예상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LS마린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턴키 수주 역량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LS전선 관계자는 “과거 프로젝트 수



LS전선이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해저케이블을 선적하는 모습. /LS전선

행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며 “검증된 턴키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간망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해저 케이블 시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LG전자 ‘시네빔 큐브’ 신제품 출시

LG전자가 밝기와 음향 성능을 한층 강화한 빔프로젝터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27일 시네빔 큐브 2026년형 신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모델은 가로 8cm, 세로·높이 13.5cm 무게 1.49kg의 초소형임에도 4K 고화질로 최대 120인치 초대형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이전 모델 대비 밝기는 최대 600안시루멘(ANSI lumen·미국표준협회 기준 실제 채광 밝기), 사운드 출력 4W로 밝업그레이드됐으며, USB-C타입 전원, 리모컨 개선 등으로 한층 더 사용이 편리해졌다. /차현정 기자